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전남 유치 잔걸음

‘신안 지지서명’ 캠페인 전개 전국 최대 면적 당위성 확산 지역민 보전 의지 등 최적지

전남도가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를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18일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신안 유치 지지서명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갯벌 유산 전국 최대 면적, 최초·최대 해양보호구역 지정, 정부계획 기여도, 지역민의 갯벌 보전 의지 등을 바탕으로 신안 유치 당위성을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지지서명은 ‘온라인(모바일) 전남도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기원 웹사이트(www.한국의갯벌.com)’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 선정 계획을 발표하고 평가기준과 일정, 공모절차 등을 공개했다. 공모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공모 기준은 지자체의 토지 무상임대, 부지면적 1만㎡ 이상, 광역자치단체별 1개 시·군 신청 등이다. 사업비는 국비 320억원이 투입되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의 90.4%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유산 등재까지 주도적이고 핵심적 역할을 한 점을 강조하며 보전본부 입지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보전본부의 역할이 세계자연유산 등재 갯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전관리에 있는 만큼 갯벌 최대 보유지역인 신안에 본부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2001년 12월 무안이 최초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받았고, 습지보호구역이 1,206.22㎢로 전국의 84%를 차지하는 등 보유 면적뿐 아니라 지역민의 갯벌 보전 의지 또한 전국에서 으뜸이라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도는 특히 1992년 영산강 4단계 사업으로 갯벌 3만3,560ha를 매립해 간척지와 담수호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대단위 간척사업 계획을 백지화시킨 사례 등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순천시와 신안군은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각 유치를 준비

했다. 하지만, 해수부가 시·도별 1개 지역 공모기준을 공개하자 전남도는 세계유산 총면적의 85.7% 보유하고 유산 등재에 공헌도가 높은 신안으로 응모할 것을 협의·결정했다. 신안군이 전국 대비 52%(19곳 중 10곳)를 차지하는 갯벌 면적에 대한 생태계 복원 사업을 지속해 추진해 왔고, 갯벌 식생 복원 사업 최초 추진(2022-2025년·150억원) 등 갯벌 보전관리 정부정책에 부응한 선도적 역할을 한 점도 높이 평가했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은 세계자연유산의 90% 이상과 전국 갯벌의 42%를 보유하고 있어 보전본부 건립의 최적지”라며 “본부를 신안에 유치해 지속가능한 보전과 현명한 이용으로 미래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6일 오후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 6차의제 선포식'에 참석해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정영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미래세대인 초등학생 등과 6차의제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지속가능 광주’ 만들기 힘 모은다

6차 의제 선포...5년간 실천운동

광주시가 기후 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광주 만들기를 위한 ‘광주 6차의제’를 선포했다. 광주 의제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에 따른 것으로,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운동 실천계획이다. 광주는 1997년 1차의제를 수립하고 이후 5년 마다 의제를 수립·실천하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16일 시청 시민홀에서 ‘광주 6차의제 선포식’을 개최하고 6대 핵심의제와 2대 공통·특별의제를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강기정 시장,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정영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초등학생)에게 6차의제 피켓을 전달

하는 퍼포먼스 등이 펼쳐졌다. 이번 광주 6차의제는 ‘기후위기 시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광주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광주지속가능발전목표(SDGs)2030 달성을 위한 실천과제다. 6대 핵심의제는 기후 변화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고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생태·경제·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광주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민참여 재생에너지 전환 ▲생물다양성 보전과 회복 ▲책임 있는 생산과 친환경 소비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환 ▲불평등 감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다양성 존중과 인권감수성 증진 등이다. 아울러 시민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공통 의제로,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는 특별의제로 각각 선정됐다. 광주 6차의제 선정을 위해 50여 곳의 시민단체, 기업, 행정, 분야별 전문가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 과정을 통해 이끌어낸 민관협력 거버넌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행정·기업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해 향후 5년(2022-2026)간 실천운동을 펼쳐나간다. 강기정 시장은 “환경, 경제, 인구, 교육 등에 있어 지속가능발전은 도시의 안전 및 미래 경쟁력과 직결 된다”며 “광주공동체가 발표한 이번 6차의제는 탄소중립도시로 한 발 더 빨리 가는 징검다리이자 미래세대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실천해야하는 소중한 약속인 만큼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도의회,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촉구

김호진 의원 건의안 대표발의

전남도의회가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제365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책임의 24시간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지원 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15년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최종증발달장애의 경우 활동지원사가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63%가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우울증,

공황장애, 사회적 관계 단절 등 가족들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강제적 경제활동 포기로 경제적 빈곤은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벼랑 끝에 내몰린 발달장애 가정의 자살 참극과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통계조차 작성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보다 더 세심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참사는 국가지원 체계의 부재에 따른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다”며 “24시간 국가 돌봄 지원 체계 구축과 최종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사의 급여 지원 단계 현실화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근산 기자



“자치경찰위, 수요자 중심 정책펴야”

임형석 도의원, 농어촌 서비스 촉구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은 365회 1차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되면서 지역 맞춤형 치안 시책 발굴과 명품 치안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도민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르신 범죄피



해 예방 및 섬 치안 대책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존 해왔던 CCTV설치 사업에 치우쳐 있다”며 “명품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중심의 자체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급속한 노령화를 겪고 있는 전남은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마을 진·출입로, 보행로 없는 도로,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 중 사망자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전남의 특성과 현황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근산 기자

www.hinuri.co.kr

부동산개발 | 분양마케팅 전문 디벨로퍼 그룹 하이누리

하이랜드(주)

(주)누리산업개발

(주)나로디엠씨

(주)하이누리

모두가 같은 길을 걸을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찾습니다.
모두가 한곳을 바로보고 있을 때 새로운 시선으로 숨겨진 길을 찾아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차별화된 접근과 전략으로 성공 분양으로 가는길,
부동산개발 | 분양마케팅 전문 그룹 하이누리가 해내고 있습니다.

회장 김 동 기
광주·전남 부동산학 박사호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1대, 2대 호남지회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한국 부동산 분양마케팅협회 호남지회장
광주광역시·광주도시공사 자문위원
분양상담사 법정교육 전임강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전임강사